

박원순 여론조사·배심원평가 우세...박영선 조직력 우세

“결판은 참여경선서 난다” 세불리기 경쟁

아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 측은 시민 여론조사, TV토론, 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 다음달 3일 치러지는 통합경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30%씩 반영되는 여론조사와 TV토론 배심원 평가는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가 우세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거센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영선 후보 측은 지난 25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가세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TV토론 배심원 평가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양 후보의 차이가 한 자릿수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40%가 반영되는 참여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력을 믿고 있는 박영선 후보 측은 대역전극의 발판을 참여경선에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

하다. 민주당이 서울시 48개 지역위원회별로 200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박 후보 측은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빠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배심원 평가에서 격차를 10%포인트 이내로 좁히면 참여경선에서 만회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 측도 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당원에 의존한 민주당과 달리 유권자들의 자발적 지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인단 참여 안내문을 내걸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참여하고 집이나 사무실을 비울 경우 휴대전화로 착신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트위터에도 수시로 글을 올려 선거인단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여론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없어 영똥한 결론이 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읍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



시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오른쪽)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8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뒤 한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맹과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지해 주는 단체, 조직에 호소하러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 결

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TV 토론도 후보 경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9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의사를 내달 초 발표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선거 지원 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오늘 이런저런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박 전 대표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 ‘나경원 때리기’

“장애인 알몸 목욕봉사는 인권침해” 공세

민주당은 2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나를 앞으로 다가온 범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시민 후보’ 박원순 변호사를 제치는 것이 급하지만, ‘나경원 때리기’ 대역 공세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나 후보가 최근 증중장애인 시설을 방문, 목욕봉사를 하던 과정에서 장애인 청소년의 벌거벗은 모습이 취재진에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을 빚는 데 대해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벤트 정치, 탭댄스 정치는 안 된다는 말을 왜 했는지 알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와 한국

장애인부모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면서 “증중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개인의 정치적 선전이나 영리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이자 약질적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상품을 촬영할 때나 사용하는 반사면에 조명기구까지 동원해 목욕도 습을 촬영했다”며 “나 후보 측은 의도된 촬영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마지못해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린 사람이 ‘의도한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의 마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박영선 후보는 나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가짜복지’라며 각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경원, 범야권 끌어안기

YS·JP 자택 예방... 지하철 타고 스킨십 강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이석연 변호사의 공식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 유력 후보’가 될에 따라 범야권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

나 후보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보수시민사회연의 ‘결정토론회’에 예고 없이 참석,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듣고 선거과정에서 잘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참석 직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과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의 장충동 자택을 잇달아 찾았다.

이에 앞서 나 후보는 광화문 지하관료를 찾아 하수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전날 청년창업 현장방문에 이어 ‘안전한 서울’을 테마로 한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장 선거 지원 박근혜 말한적 없다”

이정현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9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 의사를 내달 초 발표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선거 지원 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오늘 이런저런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박 전 대표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보수진영에서 나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데 따른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 여부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왜 뒷짐 지고 있나”

법사위 감사원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의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직무감찰권이 있는 감사원이 의혹에 뒷짐을 지거나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었느냐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함바버리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 “이미 사법처리 됐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상당수에 대통령 측근들이 관련돼 있다”며 “여론은 대통령에게 음침마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민심을 읽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지연 의원은 “야당이 지적했을 때 감사원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감사원이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임기말 이 다가오니 사정기관이 제 갈길을 찾아가는데 국제청과 감사원만 청와대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그렇지 않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화살을 최근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들렸다.

이은재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중소기업 및 선박 선수금급보증 지원실태 감사에서 SLS조선의 가액 보합사건을 확인했는데도 관련자 징계가 미약했다”며 총체적 부실감사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국철 회장의 로비를 받아 누가, 왜 무리한 보증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감사원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측근 비리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양건 감사원장 “임기말 단순 사례 치부해선 안돼”

양건 감사원장은 29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단순히 임기말의 통상적 사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원장은 측근비리 방지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에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감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 동생의 동서가 대통령을 팔아 사기를 치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며 “대통령의 사위, 조카, 영부인 사촌에 이어 사돈의 팔촌까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중에도 구설에 안 오를 수석은 어제 발령받은 홍보수석 빼고 누가 있느냐”며 “오죽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민정파 사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1 재광 진도군 향우회 체육대회

○ 일 시 : 2011년 10월 15일 10:00~ 17:00

○ 장 소 : OB 맥주 광주공장 (북구 양산동)

○ 대 상 : 500명(내빈, 향우회원 등)

○ 행사내용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 회 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체육행사 (축구, 배구)
-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 폐 회

○ 추진위원

재광 진도군 향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수석 부회장	한찬권 010-7156-4363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진도읍 향우회장	이종원 010-5531-9797
고군면 향우회장	한진옥 011-9667-8041
군내면 향우회장	이덕홍 010-9978-7900
의신면 향우회장	박상열 010-2409-1548
암회면 향우회장	곽봉일 011-2616-8846
지산면 향우회장	최정규 010-3468-7741
조도면 향우회장	김재호 011- 609- 1779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복제(물류창고, 공장직할)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근, 28,845㎡(8,726평) 대지 94800평, 건축을 있을 때매가 13억
- ▶준주거지역 (병원, 사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직할) 화정동, 광산도리본,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근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인정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158평 건평112평
- 김장기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말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 김장기4억8천만 최저가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 김장기4억2천만 최저가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 김장기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199평 건평155평
- 김장기4억5천만 최저가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건(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3억5천만(조정가능)
- 신안군 지은면 고장리 외곽수목장야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정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